1. 1기압 상온에서의 수증기의 분압은 0.02%이고, 이를 그래프에 표현해보면 노란점이다. 이를 이용해 보면 수증기가 가장 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물의 온도가 높아져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커지게 되면 끓게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대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물이 100C 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된다. 그래서 대기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밥솥 위에 돌을 올리기도 한다.
3. 김이 서리는 현상은 실내의 수증기가 차가운 창문에 닿아 액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때 에어컨을 틀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김이 서린 것을 없앨 수 있다. 이 과정을 그래프에 표현해보면 파란색 점이 검은색 점으로 변하게 되어 김이 사라지게 된다.

